79호, 2008.10

논평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

기고 / 자본주의 공황과 미국발 금융위기 / 허영구

평화협정 실현운동 / 2단계 운동에 임하는 나의 각오 / 김문경

현안 / 미군 살찌우는 국방비 / 오혜란

현안 / 미군 쓰레기 탄약 사들이겠다는 국방부 / 황윤미

현장 / 위기에 빠진 아름다운 마을 오현리 / 박종양

| 여는 그림 |

고향에서 살고싶다는
할머니와 아이.

고향집과 시골집 할머니는 동격의 이미지다.
말썽꾸러기 아이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할머니,
밤하늘의 별과 풀벌레 소리,
자연친화적인 군것질거리....
빡빡한 도시생활에서 잠시라도 흐뭇하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정감있는 이미지말이다.

“고향에서 살고싶다”는 피켓을 든
참담한 표정의 할머니와 간절한 표정의 아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집회의 풍경이다.
이들은 훈련장이 확장되면서
‘고향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평택 대추리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장보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며
추억을 품고 자라날
‘고향’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진 _ 이유빈·글 _ 오미정

| 논평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

1.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마침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난관과 지체를 겪던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게 되었다. 우리는 늦게나마 이뤄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6자회담이 지체된 것은 미국이 6자회담 합의를 벗어나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어떤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북한의 단호하고 공세적인 조치에 밀려 검증 내용과 시기 등에서 자신의 요구를 대폭 후퇴함으로써 정치적 판단력 부재와 외교력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미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강경파에 휘둘려 북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6자회담 2단계 마무리가 가시화됨에 따라 곧 3단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열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조미·조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것과 맞물려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3. 미군철수·북핵 폐기·평화군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미군철수와 동맹 폐기, 북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한반도 평화군축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규정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고, 관련 당사국과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실 타당한 방안이다.

4.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및 6자회담 진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 당사국들은 6자회담 진전으로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및 6자회담 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 침략군화) 확보,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확장과 무건리 등 한미공용훈련장 확장,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작전계획 5029 재추진, 미제 첨단 공격무기 도입과 계속되는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 등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부담과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와 같은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그 실행을 위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 한미간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서해상 무력 시위, 전단지 살포 등 남북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결적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 탈퇴 요구를 받지 않으려거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6자회담 진전을 방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에너지 지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08.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고 |

자본주의 공황과 미국발 금융위기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작년 11월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21조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자금이 6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돈의 약 3분의 1이 몇 달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21조는 우리나라 돈으로 2경 5,000조원인데 경(京)은 조(兆)의 만 배나 되고 동그라미가 16개나 붙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게 1인당 4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액수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즉 금융파산의 여파로 한국증시도 308조가 증발했는데 국민 1인당 640만원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세계평균보다 약 50% 더 많은 손해를 본 셈이다. 이 돈이면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년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간 7% 성장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금년 4% 성장을 한다고 해도 달러 대비 1인 국민소득이 노무현 정부때보다 낮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텐데, 이들이 지난 10년 좌파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달러가치 환산 국민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모든 경제가치가 미제국주의, 특히 미달러제국주의 달러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면 한국경제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 걸린다는 뜻이다.

9월 16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개장한 한국의 증시는 바로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가 6%나 하락한 138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지수선물도 5%가 하락하여 182.6을 기록하자 코스닥과 함께 선물거래 종목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가격이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 또는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 카'를 발동할 정도였다. 원-달러 환율은 4년 만에 최고치인 1,150원에 달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기 부결이라는 홍역을 치루면서 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우지수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10월 6일 현재 주가는 1358, 코스닥은 406으로 하락했다. 외환보유고를 200억 달러나 풀었지만 달러 당 원화는 1,270원으로 상승(원화 가치하락)하여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있다. 단순히 주식하락과 환율상승문제를 넘어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의 암 덩어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정부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자본언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사태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파산을 그 이유로 든다. 돈 한 푼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집값이 폭락하면 집값을 대출해 준 1차 금융기관이 망하고 곧이어 2, 3차 금융기관이 망한다는 논리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계를 하다가 계주가 야반도주하면 줄줄이 파산을 입는 경우다. 미국 월가라는 동네에서 큰 계가 터졌다고 보면 된다. 월가는 전 세계적인 곗돈이 오고가는 장소다.

오늘날 금융시장은 전통적 상업금융이 아니다. 돈 자체가 상품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고대, 중세의 천재지변과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적 인재지변이 현실화하고 있다. 모든 것이 상품화하는 가운데 돈 자체가 상품화하면서 금융의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있다. 상품화뿐만 아니라 무한정 뻥튀기까지 한다. 전 지구적 국내총생산이 50조 달러인데 반해 파생상품은 자그마치 그 10배인 516조 달러다. 그 중 미국이 283조 달러로 절반이 넘는다. 미국 국내총생산 11조 달러의 25배에 달한다. 한마디로 카지노자본주의다. 한 사람이 천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천원이지만 열 사람을 건너가면 만원이 되고 백 사람을 건너가면 십만 원이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급효과는 크다. 오늘날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구조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폭발하는 공황으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주류경제학자나 지배자들은 현 상황을 자본주의체제 문제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리려 한다. 이는 기만이고 사기다. 자본주의 역사 이래 공황은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황은 상대적 과잉생산, 자본 축적 결과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반자본주의자들이 기대하듯이 공황이 곧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는다. 공황은 불균형 상태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잉생산시설을 파괴하고 과잉자본을 정리한다. 그 결과 물가폭락, 생산축소, 무역감퇴, 기업파산, 합병, 임금저하, 정리해고, 실업증가 등이 나타난다. 반면 공황의 충격을 견디는 독점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규모를 확대하고 지배를 강화를 기회로 삼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주기적 공황이 곧바로 자본주의체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공황을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1822~1851년에 걸쳐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공황이다. 2단계는 공황이 세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1852~1873년에 걸쳐 미국, 독일로 전파되었는데 남북전쟁 등으로 극복하기도 했다. 3단계는 1874~1894년에 걸친 공황으로 뉴욕거래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4단계는 1895~1913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1차 대전으로 공황은 연기되었다. 5단계는 1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1929년의 대공황이 특징적이다. 대공황은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유럽에서도 수 백 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결국 2차대전과 한국전쟁의 희생을 거치면서 회복되었다.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죽은 수 천 만의 영혼들은 모두 노동계급이었다. 자본이 노동자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가운데 기술발전이 일어나고 이것이 자본주의 공황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하였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다.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공황이 발생했지만 이번이 그 깊이, 넓이, 강도에서 가장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황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은 다시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를 통해 공황을 극복해 왔다. 이것이 자본주의 공황의 역사였다. 80년 만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금융위기가 닥쳐왔다. 슈퍼대공황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의 특징은 매우 호경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호경기는 매우 투기적인 호경기이다. 두 번의 상황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뉴욕월가, 미 재무부와 IMF 3자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변동환율제 도입과 금융시장 완전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추진했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뉴욕월가와 직통하는 금융 고속도로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시장주의 금융관료들과 1%밖에 안 되는 지배세력은 아직도 미국에서 다 망한 투자은행에 미련을 두고 있거나 일시적 위기이므로 경제체력을 보강할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희생을 누가 치를 것인가는 분명하다. 이미 1970년대 아랍전쟁으로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1970~80년대 공황 이래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체제는 자신들의 공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지전을 펼쳐왔다.

군산복합체에 기초한 제국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군수산업의 확장과 무기생산 그리고 전쟁과 파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제국주의와 달러제국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 이제 그런 미 제국주의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이 공황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는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여하에 달려 있다. 자본가들은 그들 나름의 극복방식으로 통화긴축정책, 공공지출과 조세의 삭감,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세계시장의 개척(FTA 등), 선진제국과의 국제관계 강화(한미동맹 강화), 노사정 대타협(노동운동 무력화)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일시적 공황탈출은 경제위기책임을 노동자민중에 전가하면서 추가착취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에 노동자 민중진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군사적 제국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문제는 반드시 군사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황적 성격을 지닌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민영화한 은행과 공기업들이 사회적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하고 국가적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제 계급 계층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공황의 시기라고 지레 겁먹고 위축되어 투쟁을 포기한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는 대가를 노동자 민중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 평화협정 실현운동 |

2단계 운동 에 임하는 나의 각오

인천사랑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김문경

노동조합 전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았다.

전쟁과도 같고 어쩌면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하며 힘겨루기를 해야 할 것 같은 희로애락이 뒤섞인 날들을 지내온 것 같다.

마치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축소해놓은 듯한 격정적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과 해방, 신탁을 거치고 전쟁을 치르고 휴전으로 대치하면서 슬픔과 아픔, 기쁨과 분노를 모두 경험해 온 바로 그 한반도와 비교해서 말이다.

하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경제, 사회, 정치 민주주의는 때로는 더디게 조금씩, 때로는 폭풍처럼 강하게 몰아쳐 진전을 거듭하여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여전히 많은 위협에 힘겨워 보이고 아직까지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비록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밀린 숙제를 하듯 큰걸음으로 다가섰다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변정세와 이념에 흔들거리는 불안한 상태임에 틀림없다.

6자회담, 크리스토퍼 힐, 냉각탑 폭파, 북미협상, 최근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연일 뉴스에는 남북한과 주변정세와 관련된 소식들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무감각해진 것 같다.

적잖은 진전과 합의, 회담과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다고나 할까.

노동조합 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갈망보다는 북핵에 대한 불안감을 더 우려했던 것 같다.

언제나처럼 대의원대회에서의 통일 꼭지는 맨뒤에서 순위를 다투는 분야가 되었고 통일기행이나 개성, 금강산, 백두산 관광 정도를 그 범주에 넣는 것으로 대신하곤 하였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별지부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순위 중에 후순위였다.

이런 와중에 인천평통사에서 뿔테안경의 느릿한 어투의 한 분이 노조를 방문하였다.
뉴스에서 들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점점 얘기가 깊어지더니 평화협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평화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일 어업협정, 제네바협정 등은 들어봤어도 평화협정은 생소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핵심은 미군을 몰아내고(내보내고) 한반도에 전쟁 종식을 선언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자는 내용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무상의료를 앞당길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 국방비 절감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기도 했다.
주둔한 미군의 어이없는 만행과 몰염치한 행동과 요구에 약간의 흥분도 하였다.
말로만 부르짖었고, 관념 속에서 자고 있었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물어보았다.
느릿한 말투의 그 분(?)은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위원과 추진길잡이 용지를 내보였다.

당장 대의원들을 포함해 간부들을 추진위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진길잡이도 대의원마다 만들어올 것을 약속했다.(100%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신규조합원 교육시간을 이용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접하도록 하였다.
7월 27일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조합원들과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추진위원 사랑방 교육에서 협정서를 비교하며 내용을 함께 논했던 것이 이 분야의 시야를 넓히게 된 계기도 되었다.
내친김에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마을체육대회에도 의료지원과 함께 참여하였다.

비록 많은 조합원들이 넉넉한 시간을 갖고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밑거름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얘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의 노조와 산별에서도 더 이상 통일활동이 후순위에 걸쳐있지 않고 핵심 관심분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6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로 표현되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는 날을 고대한다.

추진위원·길잡이 조직 현황

추진위원, 길잡이 조직 현황
(8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추진위원(명)		길잡이(명)	전체 추진위원(명) <3월 24일 이후>
중앙	125	537	475	
서울	165	265	719	
부천	68	5	249	
인천	153	192	657	
경기남부		9	22	94
대전충남		39	13	253
전북	0	396	60	
군산	19	16	132	
전주	0	0	40	
광주전남		126	91	486
안동	7	11	75	
대구	23	0	47	
계	734	1,548	3,287	

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한 달이었습니다.
먼저, 구성원 모두가 추진위원인 여성분회(서울평통사)는 분회에서 하루에 한명씩 추진위원을 조직하기로 마음을 모은 후 한명 한명 추진위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들이 추천해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니 흔쾌히 추진위원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윤한탁 추진위원이 추천해주신 '향(전교조 퇴직교사 모임)'의 많은 회원들이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과 철도노동조합에서 192명의 길잡이 명단을 보내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한겨레 4면에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선언' 광고가 추진위원 및 길잡이 명단을 포함하여 나갔습니다.

| 현안 |

미군 살찌우는 국방비

자주평화팀장 오혜란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일반회계)으로 편성하여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재정(일반회계)의 15.2%나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다. 일반회계 말고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79억원, 무건리 훈련장 확장 등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264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국방대 이전) 145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국방비는 29조 1,46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원 달러 환율이 정부전망치(1달러 1000원)를 넘어서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해야한다. 3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비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유가폭등, 물가폭등에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땅히 대폭 삭감돼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퍼주기'로 서민경제 등골 휜다.

2009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1) 249억원, 미군기지이전비용 2,679억원, 미 통신선 사용2) 9억원,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원, 과학화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원, 아프간 파병 7억원,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원 등은 대표적인 미군 퍼주기 비용이다. 모두 1조 1,403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미군의 낡은 탄약(WRSA탄: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비축탄약) 인수비용 2,714억원(운송용역으로 대납)과 5~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에 따른 고가의 수리부속품 구입과 장비유지비까지 따지면 미군퍼주기 비용은 족히 수조 원이 된다.

방위비분담금, WRSA인수 예산 등은 불법 부당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주둔비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은 한미소파 5조를 위배한 불법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 방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할 최소한의 근거와 명분마저 사라졌다. 또 방위비분담은 국가재정법(제 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배되고 국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으로 불요불급한 군사시설, 초호화 아파트 건설 사업 등을 마구 시행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군사건설비를 매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미국에게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WRSA탄 인수비용도 마찬가지다. WRSA탄은 2004년 기준 92.7%가 20년 이상된 노후·도

태탄약인데다가, 한국군의 재래식 탄약 자급율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미군의 낡은 탄약을 사야할 까닭이 없다. 또 평양점령과 전쟁의 빠른 종결을 목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들여온 WRSA탄을 사들인다는 것은 지금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과의 WRSA 협상에서 2,714억원을 들여 미군의 낡은 탄약 25만 9천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더욱이 SALS-K3)와 부속 <의정서>에는 WRSA탄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용도가 바뀔 경우, 한국이 그동안 WRSA탄을 저장·관리하는데 든 비용(과거지원비)을 돌려받게 되어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되 가져가게 하고, 정부는 그동안의 저장·관리비, 이른바 '과거지원비'를 받아냈어야 한다. 국방대학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74~94년까지의 WRSA탄의 과거지원비는 최소 5,2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의 단순합산)~최대 8,6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에 적정 이율(10%)을 복리로 계산)에 달한다. 그런데 미군의 낡은 탄약을, 그것도 국민혈세를 들여 인수하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미군 퍼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쓸모없는 낡은 탄약의 수송과 폐기비용(약 13억 달러)을 절감한 반면 우리는 그 처리비용을 떠안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상으로 인수하면서 WRSA탄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까지 감수하게 된 것이다.

미군 퍼주기 비용은 국방예산 상승의 큰 요인

미군퍼주기 비용은 국방비의 상승은 물론 전체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상승함으로써 지속적인 국방비 상승의 압박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199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국방예산(7조 4,524억원에서 26조 6,490억원으로)의 증가율은 257%인데 비해 방위비분담금(835억원에서 7,415억원으로) 지원 증가율은 무려 788%에 달한다. 또 2009년 분담금 7,600억원은 '09년도 국방예산 28조 6,379억원의 2.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경우는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되고 있다. 국방부가 8일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지난해 예상액인 9조 8,000억원보다 무려 3조 5,000억원이 늘어난 13조 3,000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중 한국측 부담은 5조 8,000억원, 미국측은 7조 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측 부담 중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측 부담은 9조 5,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평택특별지원비, 반환기지환경오염 치유비 등 간접비용 2조 3,573억원을 합하면 우리측 부담액은 모두 11조 973억원에 달한다. 2009년도 국방예산의 42%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이에 2008년 6월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소요에 충당되는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지이전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방부는 일반회계에서 1조 400억원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미 극동공병단 부지 등을 국방부 소유로 이관을 추진하고, 용산기지 주변 4개부지 용도변경과 용산기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부족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을 전용하는 것은 반환기지매각대금 이외에 국민에게 다른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통과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동맹비용의 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는 한 국방비의 지속적 상승과 국가재정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 등 안보환경이 근본적인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불법 부당한 한미동맹 관련 비용의 전액 삭감으로 한미동맹 폐기를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와 군축 실현을 앞당겨야 할 때이다.

미 군수산업을 살찌우는 예산

국방부는 2009년 방위력 개선사업비로 2008년 예산 대비 11.9%나 증액된 8조 5,954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제주해군기지 432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858억원, 차기유도무기사업(SAM-X) 4,298억원, 이지스구축함(KDX-Ⅲ) 3,192억원, K1A1전차 2,978억원,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한 잠수함 사업(장보고-Ⅱ, Ⅲ)에 3,881억원, F-15K 도입에 6,018억원, 합동원거리 공격탄(JASSM급) 등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에 927억원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공격 무기 도입에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첨단공격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산으로, 엄청난 규모의 획득비가 미 군수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잉사는 2002년 5조 4,000억원 규모의 1차 FX 사업(F-15K 도입), 2006년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와 통합정밀직격탄(JDAM)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SLAM-ER) 등 수천억원대의 정밀유도무기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에는 2조 3,000억원 규모의 2차 FX사업까지 따냈다. 2002년부터 6년간 보잉사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판매액만해도 10조원에 이른다. 2009년도 국방예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F-15K는 운영유지비가 획득비의 2~3배 이른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탑재무장, 수리 부속과 정비 등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득비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대미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국산화율이 73%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KDX-Ⅲ 1번함 사업비(7,783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3,998억 6천만원이 미국으로 지출된다4)고 하니 미국으로 유출되는 방위력 개선사업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5년 방위력 개선비 6조 9,335억원 중 1조 4,518억원을 첨단무기 획득을 위해 해외로 지출했으며, 순수 전력투자비 성격이 아닌 경상적 성격의 전력투자비5)로 1조 7,931억원을 해외로 지출했다는 통계에 기초해 볼 때 2005년도 국방예산 20조 8,226억원 중 3조 2,449억원의 국민혈세를 주한미군 및 미 군수업체 갖다 바친 셈이다.

세계 5위의 미제무기 수입국

한국은 1999~2006년까지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실제 전달된 무기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56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세계 5위(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 12. 20)의 미제무기 수입국이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한해만 약 37억 달러(3조 5,000억 원)이상의 미제 무기를 수입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일본이나 영국의 미제무기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그런데 최근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기 위해 대외군사판매(FMS)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이 미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었다. 즉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수준으로 격상시켜 최첨단 무기, 기술의 판매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FMS 지위향상은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이 유럽제 무기로 채워질 것을 우려해온 미 군수업체의 로비 결과이며,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이 미 군수업체와 국방부 및 의회, 한국의 국방부를 잇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제 FMS 지위 격상으로 미 군수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미 군수업체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추세대로가면 향후 5년간(2008~2012년) 방위력개선을 위해 투자될 54조 8,572억원 중 상당부분이 FMS 지위 격상과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더 많은 미국산 첨단 무기가 도입될 것임은 필연적이다.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 삭감으로 평화군축 실현해야

미국산 첨단 고가의 무기들은 대부분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이 전·후방 전략목표에 대한 동시 타격을 통해 북의 군사력을 궤멸시키는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다. 또 이들 무기는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따라 한반도 역외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이다. 공대공, 공대함은 물론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F-15K를 도입한 것은 대북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화력전, 적 방공망제압(SEAD)작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역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북 종심작전과 선제공격 능력을 넘어서서 주변국 영토에 이르는 전투반경(900km 이상)을 갖춘 F-15K를 운용하는 것은 곧 동북아에서 군사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KDX-Ⅲ도 마찬가지다. KDX-Ⅲ가 함대지 작전능력을 갖춘 것은 대북 종심작전을 위한 것이다. 또 KDX-Ⅲ를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가 수행하게 될 해외원정작전7)은 미국의 침략전쟁과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 도입되는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무기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역행한다. 대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전쟁목표와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협력을 구실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을 그대로 둔 채 동북아 및 세계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국군에 강제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서 벗어나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어위주의 전략과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다면 국방비의 대폭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방비 삭감으로 획득정책의 대전환을 강제해야

첨단 고가의 미국산 무기도입은 국내기술 개발을 저해하며 더 많은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군수업체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F-15K에서 운용하는 SLEM-ER이나 올해 도입하기로 한 JASSM급 미사일 등 고가의 항공탄약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 써야 하므로 한국은 저가 재래식 탄약, 미국은 고가의 항공탄약으로 전문화되는 대미 종속적 방위산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67% 수준인데 그중 화력, 기동, 유도 분야는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첨단 무기분야(항공, 유도, 감시, 정찰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아 군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8) 그런데 문종렬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1) 국방부의 조기 전력화 정책 2)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첨단 무기를 선호하는 군의 소요제기 3) 첨단무기 해외 직도입 선호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최첨단 공격무기를 조기에 보유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소요제기가 해외 직구매 및 국부의 해외유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산업발전,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게 하는 악순환 구조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첨단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을 삭감하고 세계적 수준의 무기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점으로 된다. 향후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을 위해 26조 6,632억원이 국내방위산업계로 지출될 예정이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여되는 방위산업이 자주적 군사력 건설과 국내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국산 첨단 공격적 무기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은 삭감하면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에는 140억원 배정

미국 발 금융위기가 언제 우리를 집어 삼킬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물가폭등,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 지금, 국방예산 삭감은 국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예산 확보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상위 2%만 부담하는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부자들의 세금은 대대적으로 깎아주면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안에서 163억원이나 삭감했다. 또 총사업비 2,900억원이 드는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도입을 위해 2009년 국방예산에서 140억원이나 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같은 사업에 대해 “지나친 사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이다.

예산 부족 타령 집어 치우고 군살부터 빼야

국방개혁 2020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작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 감축, 군 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이다 못해 적대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무기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족시킨 방위사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 중기계획 작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국방부로 되 가져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방부는 2009년도 경상운영비로 2008년 대비 5.7%가 증가한 20조 425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경상운영비 구성은 병력운영비가 10조 1,436억원, 전력유지비가 9조 8,98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한 병력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군비증강론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다. 병력운영비를 줄이자면 병력운영비의 85%를 웃도는 인건비부터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원을 초과한 장성과 장교부터 줄이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정원 자체를 대폭 줄여 병사 수에 비해 장성과 장교가 지나치게 많은 군의 계급구조를 바꿔야 한다. 나아가 현행 병력규모를 그대로 두거나 50만 병력 유지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20>으로는 병력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20~30만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50만으로 감군하기로 한 <국방개혁 2020>마저 2025~2030년으로 연기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조 이상의 국방예산을 요구하는 육군 전력이 현대화하지 못한 이유가 과도한 인건비 등 운영 유지 부담 때문이므로 병력유지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군 구조 개혁 특히, 비대한 육군의 구조 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방부는 예산 부족 타령을 집어치우고 자신의 군살부터 빼야 할것이다.

<최소 3조 6천억원은 삭감가능하다 - 삭감 제안 목록>

주한미군 퍼주기 비용(2009 국방예산 중) 1조 1,403억원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주한미군시설 부지 지원 249억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2,679억원
미 통신선 사용 9억원
한미연합 연습비용 분담 52억원
과학화훈련 등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원
아프간 파병비 7억원
무건리훈련장 확장 753억원
제주해군기지 432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858억원
차기유도무기사업 4,298억원
이지스구축함 (KDX-Ⅲ) 3,192억원
K1A1전차 2,978억원
장보고 -Ⅱ,Ⅲ 잠수함사업 3,881억원
F-15K 도입 6,018억원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 927억원
계 3조 5,987억원

| 현안 |

미국 쓰레기탄약 을 사들이겠다는 국방부

서울통평사 사무국장 황윤미

전쟁예비탄약 1974년부터 들여와
물가 감안 안해도 20년간 8,600억 소모
미 의회에서는 '탄약 지원' 종료 결정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관리비 돌려받기는커녕
일부 반출비용으로 2,700억 또 부담키로 해

현재 한국이 저장·관리하는 미군 소유의 탄약이 있다. '전쟁예비탄약'(WRSA: War Reserve Stock for Allies)이 그것인데, 1974년에 맺은 '한-미 단일탄약지원체제'(SALS-K: Single Ammunition Logistics System Korea)에 따라 한국이 전쟁예비탄약을 저장·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미국이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좀더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적용하되,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절감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채택한 전진방어전략은 평양점령과 전쟁의 빠른 종결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위해 아주 많은 양의 탄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량의 탄약을 한국에 들여왔는데, 대부분이 미국에서는 쓸모없거나 남는 탄약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대북 패권 전략의 실현을 위해 한반도를 자국의 쓸모없게 된 탄약의 보관창고로 이용해온 셈이다.

그런데 2005년, 미국 의회는 "2008년까지 한-미 단일탄약지원체제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양권한과 협상권한을 미국 국방부에 위임하여, 2007년부터 한-미 당국자가 협상을 벌여 왔다.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전쟁예비탄약 협상 내용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렇게 국민에게 상세한 협상 내용을 감춘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우려해 왔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이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전쟁예비탄약의 49%(25만 9천톤)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비용 2,714억원은 미국이 국외로 되가져 갈 전쟁예비탄약 운송용역으로 대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탄약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전쟁예비탄약의 저장·수송·정비 비용은 적게는 5,200억원, 많게는 8,600억원에 이른다.

전쟁예비탄약은 2004년 기준으로 90% 이상이 20년 이상 된 쓰레기 탄약이다. 게다가 한-미 단일탄약지원체제에는 전쟁예비탄약이 국외로 나가거나 용도가 바뀔 경우, 한국이 그동안 이 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데 든 비용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미국 의회가 탄

약지원체제를 종료하기로 했으니, 미국이 이를 되가져 가면 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저장·관리비를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미국과 협상하면서 과거지원비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했다면, 이를 돌려받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미군의 노후 탄약을 유상으로 인수하는 협상을 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1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미국에서 열렸다. 여기서 양 국방장관은 전쟁예비탄약 이양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우리 국민은 국민 혈세 2,714억원을 들여 미군 쓰레기탄약을 사라고 한 바 없고, 과거지원비를 안 받아내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 정부가 여론을 묵살하고 매국적 협상을 통해 미국에 또 다른 '조공'을 바치기로 한 지금, 이제 국민과 국회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이글은 2008년 10월 16일자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 현장 |

위기에 빠진 아름다운 마을 오현리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 간사 박종양

어느 날 저녁, 촛불문화제에 가기위해 길을 나섰다가 작은 전율을 느끼며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저를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반딧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각종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저녁 하늘은 심심치 않게 유성을 보여줍니다. 도토리를 열심히 먹는 청설모는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갈 생각이 없습니다. 따뜻한 여름이 되면 수천마리의 백로가 산등성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아름다운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들로 매운탕을 끓여 술 한 잔을 나누는 정이 깊고 인심이 좋은 평화로운 마을 오현리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제가 주민대책위 간사로 오현리에 들어 온지 100여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한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촛불문화제'도 다음달 8일이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맨 처음 마이크를 들고 긴장된 모습으로 사회를 보시던 주민대책위 형님, 형수님들이 이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와 노래를 청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미리 말씀 드리지 않아도 사회자가 시키면 거절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촛불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위한 사업승인을 경기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제 강제로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묘비를 제작하여 고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묘비를 들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계속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뿌리를 지키는 일은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오현리는 400여 년간 지켜온 뿌리이고 정신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묘비를 제작한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끝난 직후 오현리에는 지금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그것도 전경 1개 중대와 사복경찰들을 대동한 토지공사 직원들이 지장물 검사를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택에 침입했고 이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것에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하며 파주서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추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하던 고1, 고3의 남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민들은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틀을 보내야 했고, 세분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친 후 석방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으로 주민들이 위축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뜻대로 순순히 따라 주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던 주민들은 촛불문화제를 걱정했고, 밖에 있는 주민들은 낮에는 석방을 위해 노력하며 면회를 다니고 밤에는 촛불문화제를 지켰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석방되던 날에는 작은 잔치를 벌이며 서로의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주민들의 촛불문화제는 작은 축제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애를 다지는 장입니다.

벌써 3주째 아침 9시30분이면 주민들이 모입니다. 지장물 검사와 감정 평가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공사 직원들은 한 조당 사복 2~3명, 전경 6~8명을 끌고 마을을 휘젓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조를 나눠서 이들을 따라다니며 지장물 검사를 반대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원래 고향을 떠나려하던 몇 사람의 집을 조사하면서 순박한 주민들을 협박, 회유하며 다녔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화를 걸어 '지금 지장물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는다.'거나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던데, 지금 검사를 받아야 무허가 건물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민들을 회유합니다. 주민대책위도 마을을 다니며 이에 대응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현리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길은 주민들이 굳게 단결하는 것과 평통사같은 시민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촛불문화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불렀던 노랫말이 떠오릅니다.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피기 위해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피리를 불어라'하는 '개구리왕눈이' 노래입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그런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칠백 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고향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 광고 _ 무건리엽서 판매 |

무건리 주민들에게 평화를…

무건리 엽서 _ 1세트 10장 3,000원 / 2세트 20장 5,000원
(구입문의 : 031-958-2423 무건리상황실, 010-9989-9320)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

10월 11일, 위선남회원과 장윤지 회원의 딸 서령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서령이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꾸며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담긴 돌잔치였습니다. 서령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애태운 아이였습니다. 몸무게 1.5kg의 8삭둥이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고 병원신세도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써주신 부모님께 보답하듯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튼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만큼 주변에서도 많이들 와서 축복해주었습니다. 참, 이번 돌잔치에서 서령이는 연필을 쥐었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학자로 자랄까요? 모두 기대해 봅시다~

10월 13일, 무건리에서 향린교우들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서울평통사는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모집 차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회원님들의 도움이 컸는데요. 유호명 선생님은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추진위원 모집을 해주셨고요. 문홍주 공동대표님도 서명부스 옆에서 일일이 소개해 주시고, 추진위원도 권유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점심 식사도 아주 늦게 하셨고요. 그 외 장속도, 나영훈 회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이 50분이 추진위원으로 가입해주셨습니다. 더하여 들꽃향린의 서정호 회원은 준비해 온 컵라면을 점심때 향린 교우들에게 500원씩 팔고, 그 돈을 평화협정 모금함에 수줍은 듯 넣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협정 실현 캠페인에 도움주신 회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10월 11일, 전영규 회원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부를 이랜드 투쟁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결혼식 날 직접 뵈니 아주 예쁜 28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전영규 회원은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으로 재작년과 작년, 아주 힘든 해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영규님, 투쟁의 현장에서 만난 좋은 벗과 함께 멋진 인생을 꾸며보세요!

10월 22일, 제26차 테마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이번 테마사랑방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반도정세>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허영구 부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우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시간 반의 긴 강의였는데, 어려운 금융얘기임에도 많은 분들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 최문희(서울평통사)

부천

9월 27일 토요일 회원의 날

9월 회원의 날은 평화분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몇 주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할까 고민 고민 하더니 머리를 써야만 해결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했지 뭐예요. 그리곤 우리들 보고 풀라고 하더군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풉풉~~~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었더니 아주 어렵고 복잡해 보이던 문제들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힘과 지혜를 모으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혈액형 별로 한 팀이 되어서 풀었거든요. 혈액형에 따라 사람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다른가 봐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는 혈액형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혈액형이였을까요? 재미있게 게임을 끝내고 평화분회원들이 준비한 뒤풀이 음식이 차려졌어요. 짜자잔~~~ 깨가 서말이라고 하던 가을 전어를 비롯한 온갖 회와 큼지막한 새우구이, 쭈꾸미, 거기에 따뜻한 홍합탕까지... 해물로 차려진 술상을 받고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물론 배도 넉넉해져서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지요.

10월 3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64차
주민촛불집회 참가
개천절이라 휴일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적은 숫자지만 5명의 회원이 주민들이 계신 파주로 달려(?)갔습니다. 국방부가 강제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때문에 몹시 힘드실 텐데도 우리 부천평통사 회원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는 주민 분들의 함박웃음에 그 동안 좀 힘들었던 마음이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이 사라졌어요. 저희가 매일이 투쟁의 연속이신 주민들께 힘을 드려야 했었는데 오히려 위로 받고 왔네요. 다음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찾아뵈어야겠어요.

10월 12일 부천민중연대 대동한마당
파아란 하늘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한 가을날. 부천민중연대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우리 회원들 축구 한 게임 하고 나니 모두 힘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요. 기본이 너무 약한 저질체력들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돼지씨름, 계주, 장애물 경기 등 모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품도 푸짐하게 받았습니다. 부천민중연대 8개 단체가 모여 함께한 대동한마당, 서로 힘을 모아 더 투쟁하고 단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숙(부천평통사)
[알립니다]

쪽10월 생일-축하해요

장인옥(11/5) 배영미(11/6) 김성용(11/7) 주영일(11/14)

최창수(11/17) 황영희 (11/25)

인천
9월 26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투쟁 중
구속되었던 김원식회원 보석으로 석방
지난 9월 16일(화) 무건리 주민 불법연행 규탄 촛불집회에서 목이 졸리고 팔이 꺾여 인대가 늘어나는 등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던 김원식 회원이 지난 9월 2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파주에 사는 김원식 회원은 누구보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투쟁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곤한 몸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는 판사의 말에 김원식 회원은 “효순,미선이와 같은 제 2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투쟁은 제 2의 효순,미선이가 없게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즐겁게 투쟁하는 김원식 회원의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원식 회원 010-4810-8714, 변호사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149-02-659044 유정섭)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추진위원들
노경희 추진위원은 공부방 자원봉사와 성당일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길잡이 서명을 받고 계십니다. 길잡이 서명받기에 자신 없다면 한숨 짓던 문한나 추진위원은 매주 금요일 퇴근 후 사무실로 와서 추진위원과 길잡이 명단 입력, 평화협정 소식 퍼나르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때에도 4,000명에 가까운 서명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보희, 김주숙 추진위원도 평화협정 소식 퍼나르기 홍보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와 노사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형진 추진위원은 각종 모임에서 평화협정운동 소개하시고 평화재향군인회 회원분들을 추진위원으로 조직하셨습니다. 정동근 추진위원은 평화협정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일정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십니다. 김문경 추진위원은 평화협정 내용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 매번 신입조합원 교육에 평화협정 교육시간을 잡아주십니다. 콜트악기 해고자투쟁을 하고 있는 심자섭 추진위원은 각종 투쟁의 현장을 다니면서 길잡이 서명을 받고 계십니다. 이영성, 김맹규 단짝 추진위원(두 분이 함께 살며 실천의 현장에 항상 같이 다님)과 함께 10월 12일 민주노동당 체육대회장에서 평화협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는 분들을 평화협정 서명테이블로 데려 오고, 상근자들 팔을 끌고 여기 저기 천막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소개 시켜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추진위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힘차게 화이팅!!!
| 유한경(인천평통사)
[알립니다]

쪽황길진님의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쪽계양산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며 나무위 시위를 벌인 윤인중 목사님이 계양산 소나무 위에서 보낸 210일 간의 기록을 엮어 <솔숲에서 띄운 편지>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10월 28일(화) 오후7시, 부평3동 성당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 032-428-2230)

경기남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9월 월례집회 열려

9월 27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평택역에서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월례집회가 열렸습니다. 17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특히 오산분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자주와 통일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고, 사무처에서 이유빈 부장과 유한경 국장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평택지역에서는 이종필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평택 행정대집행 저지 투쟁에 선두에서 싸워왔던 쌍용자동차와 평택자활 노동자들, 이호성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사무국장도 참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받아본 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호응을 보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잘 만들어진 방위비분담금 선전판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집회 후에는 오산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무실에서 다과회를 하면서 월례집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종필 대표님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3~4회 거듭하면 집회가 정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평택기지 성토공사를 위해 야산들이 허물어지고 철도건설과 도로건설, 기지공사를 둘러싼 비리들이 난무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가고 있어서 우리의 투쟁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0월 집회는 10월 30일(목) 5시에 평택역에서 열기로 하고, 평택평화센터와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와 평택평화센터, 경기남부평통사는 평택미군기지문제를 시민들에게 더욱더 광범위하게 알려나가기 위하여 평택시민신문에 “신한미동맹의 문제, 공사비용과 성토문제, 평택지역 미군기지 실태와 소음피해, 송유관문제”들을 4차례에 걸쳐 기획연재하고 있습니다.

오산지역에서 열린

무건리훈련장,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선전전.

10월 2일 저녁 오산역에서는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주제로 오산지역 사회단체들과 오산분회 회원들이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오산 푸른학교 학생들과 민주연합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오산시위원회 당원들도 참가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전국으로 자전거 일주 중인 시민이 유인물을 받아가고 귀중한 간식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회원들과 참가자들 모두가 발언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오산지역 시민들에게 미군기지 문제들을 알렸습니다. 오산분회는 격주로 회원모임을 진행하며 시민선전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호헌(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는 가을 구름에 저 멀리 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올해 회원들과 함께 시작한 평화산행이 네 번째를 맞아 구봉산 산행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가을 산행은 너무나 설레입니다. 구봉산은 서쪽 덕고개에서 비재까지에 아홉 개의 암봉이 이어져 있어 험하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산세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을 하였습니다. 첫걸음은 너무나 가파른 비탈길이라서 시작은 걱정이 되었지만 곧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푸르른 가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계셨고,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상에서 펼쳐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사진으로라도 감상 하세요.

정상에는 맛난(?) 막걸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함께한 이들과 술잔을 나누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김밥과 삶은 계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누는 술잔과 시원한 바람에 삶의 힘겨움이 다 날아가고 마음의 평온이 가득 채워짐을 느낍니다.
짧은 산행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보문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화산행의 두 번째 설레임은 점심식사입니다. 유병규 운영위원의 적극 추천으로 오리백숙을 먹었습니다. 이 맛 또한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원 분들과 꼭 다시 가보고 싶네요.
| 장도정(대전충남평통사)
[알립니다]

쪾11월 27일(목) 평화카페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시간 : 저녁7시

전북

한상렬목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및 촛불기도회
검찰은 한상렬 목사를 촛불의 배후로 지목하여 구속해놓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도로교통방해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9월 25일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종교, 시민, 각계 인사들이 “한상렬목사 석방대책위”를 결성하고, 한상렬 목사의 석방 촉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검찰과 현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한상렬 목사 석방 촛불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일민주인사 한상렬 목사 석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한상렬 목사를 석방시키고, 공안탄압을 막아내며 현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냅시다.

9월 23일 오체투지 순례에 결합
무더운 날씨에도 오체투지순례단의 순례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오체투지 순례단은 무더운 날씨도 감싸 안으며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체투지 순례길에 전북평통사 이세우 공동대표와 최성훈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세우 목사님은 “그동안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참여한 이유는 도로가 위험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순례단 기운이 떨어질 것 같기에 오늘을 선택해 왔습니다. 두 분을 보니 참 짠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 두 분은 저와 종교가 다르지만 일상적인 목회에 젖은 저를 바라보니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투철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들은 꺼져가는 촛불을 밝히고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도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깨우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최성훈(전북평통사)

군산

평화캠페인을 통해 군산시민들 속으로 !!!
군산평통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군산 미군기지 확장 반대”, “전투기 소음피해 해결”,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등을 군산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화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1일 부터 11월 29일 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는 ‘군산기지 확장 의도와 철조망 설치’, ‘기름 및 오폐수 유출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F-117배치와 평화위협’, ‘해외 주둔 전투기의 군산기지 훈련’, ‘아파치헬기 배치와 야간 비행에 따른 전투기 소음피해’, ‘키 리졸브, 맥스썬더 등 대북선제공격 전쟁훈련’, ‘대북, 대중국 봉쇄를 위한 서해안 전쟁벨트’,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운동’ 등 다양한 홍보사진전이 진행됩니다. 또한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평화버튼 나눠주기, 기념사진 찍기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기지 문제가 군산시민들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일부 운동단체의 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들조차 자신의 문제임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을 조금씩이라도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기지 앞에서 일부 소수가 참여하는 월례집회만으로는 기지주변 주민은 물론 군산시민들을 군산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세워 내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구체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군산기지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군산평통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군산시민들 속에 찾아 들어가는 평화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사진과 사진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거나 물어보기도 하는 등 홍보사진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함으로써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일 캠페인에는 군산평통사 대표이신 유승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연태 운영위원, 김진환 회원, 김판태 사무국장이 함께 참가했으며 사무처 유한경 국장의 지원활동이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활동이 꾸준히 전개되면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대중화는 물론 군산평통사의 지역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체투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1일 김판태 사무국장이 김형근, 이재호, 이승희, 권동용, 윤재송 회원 등 전주평통사 준비모임 회원들과 문규현 신부님이 이끄시는 오체투지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 김판태(군산평통사)
[알립니다]

쪾매월 둘째주 수요일 2시(11월 11일)에 군산미군기지 월례집회가 기지 정문에서 열립니다.

쪾10월 24일 오후 2시, 김형근 선생님 재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광주전남

9월 9일 오체투지에 동참
배종렬 대표님을 비롯해 광주전남에서 10명의 회원들이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어렵게 잡은 날짜에 평일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날 배종렬 대표님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오체투지를 함께 한다.”, “두 분 노력의 결실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정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고 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신부님과 스님의 열정에 한 번, 칠순을 훨씬 넘기신 배종렬 대표님이 직접 오체투지에 결합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에 두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신부님과 스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두 분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다시 한 번 방문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9월 30일 무안 회원모임, 10월 2일 해남 회원모임 진행
무안은 매월 마지막 화요일, 해남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회원모임을 하기로 하고, 그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30일 무안 모임에는 모처럼 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이신 서창호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협 실현운동’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정동석 사무국장이 ‘광주 군 공항 무안이전'과 관련한 논의 과정과 문제점을 발제하여, 광주전남평통사의 방침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군 공항 무안이전 문제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그런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무안신문 서상용 기자와 공무원노조 이재광님 등이 새롭게 추진위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10월 2일은 해남 모임을 했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이 안동과 대구를 거쳐 해남까지 방문해 주었습니다. 모임에는 한강희 목사님, 해남공고 김기중 선생님, 윤영상 민주노동당 해남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17명의 회원, 추진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에 앞서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회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김기중 선생님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 정동석 국장이 최근 공안탄압 관련 내용을 짧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날 유영재 실장은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정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참석자들 모두 어려운 내용임에도 높은 집중력과 열의를 보였습니다. 차기 모임은 정동석 국장이 은적사를 방문해 삼각스님과 협의해서 절에서 차를 마시며 진행해 보자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 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알립니다]

쪾일정 공지입니다.
- 10월 13일(월) 광주전남 평통사 운영위원회, 광주·나주지역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 10월 28일(화) 무안지역 회원 모임
- 10월 30일(목) 해남지역 회원 모임
- 11월 3일(월) 회원 2차 산행(해남 두륜산)

쪾이달의 회원 가입

- 이옥신님, 이기호님, 김옥길님 감사합니다.

안동

9월 안동평통사 운영위원회
9월 안동평통사 운영위원회의가 9월 3일 고교위탁 대안학교인 나섬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돌아보며 촛불의 성과와 미완 등 촛불투쟁의 분석이 있었고 또 향후 전개될 정국의 추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매 해 진행되는 평통사 주최 “통일시민학교”의 2008년 운용방안과 기획 방향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그 실무 추진위원장으로 박무식 위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 회원의 만남행사로는 “통일영화보기”로 정하고 그 상영작과 세부 사항은 별도로 카페에 공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원만남의 날" 행사
9월 25일(수) 오후 7시 나섬학교에서 9월 회원 만남의 날 행사인 통일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영화 속 북측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북측의 일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북측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영화의 CD본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영상물을 한 이방인의 눈으로 본 평양방문기 르포로 급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눈을 가진 한 미국인 기자의 솔직 담백한 평양방문기와 또 이북의 일상이 묻어 있는 농촌 생활을 가감 없이 잔잔하게 전달해 주는 신선함은 이 날의 행사 의미를 살리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창환 회장님과 강석주 사무국장님 외 평통사 회원 15명이 함께 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 한철희(안동평통사
[알립니다]

쪾제6회 안동 시민학교
- 주제 : 통일의 창을 여는 마당
- 일정 : 10월 22일~11월 12일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장소 : 가톨릭 상지대학 본관 2층 회의실
- 강좌
·1강 10월 22일 : 한 통일운동가의 삶
(대구 6.15 공동위원회 이준원 선생)
·2강 10월 29일 : 가톨릭 신부님의 방북기
(안동 정평 김영식 신부)
·3강 11월 5일 : 민족 21기자가 본
북녘 사람들의 삶의 모습
(민족 21 정용일 취재부장)
·4강 11월 12일 : 최근 통일 정세의 흐름과

평화통일의 실현 방도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

| 캠페인 |

국방비 반으로 줄이면
우리아이 교육비 부담도 절반으로!!

2009년 국방부 예산은 약 28조 6천억원.
이 가운데 아예 대놓고 미군한테 퍼주는 비용은 약 1조 1,403억원. (국방예산 외에도 미제 무기 도입비 등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10조를 훌쩍 넘는다.) 게다가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비로 이루어진 경상 운영비는 2008년 대비 5.7% 증액된 20조 425억원. 이렇게 비대한 경상운영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군비증강론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가 연일 계속되는 요즘, 가계 지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교육비와 의료비라고 한다.

자 그럼, 대놓고 미국에게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 쓸데없이 돈을 퍼붓고 있는 국방예산을 절반만 줄여보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한달지출 교육비는 28만 3,200원. 국방예산 절반으로 줄이면 자녀 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사진이야기 |

무건리에 평화를

9월 28일 직천초등학교에 왁자지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건리 주민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가을 운동회를 하였습니다.
박도 터트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눴습니다.
10월 11일에는 국방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부지로 충분하며,
주민들의 땅은 그대로 둬도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이상희

이상희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뻔히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했던 국회에서 말이죠.
이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과연 자기가 나설자리 안 나설 자리 분간 못하며 앞장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를 '미국의 앞잡이'라 할 만합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은 조선인들을 '일제의 앞잡이'라 했듯이요.
이런 자를 믿고 우리 국방을 맡길 수는 없는 법이죠.

길에서 발견한 희망
- 오체투지 순례길

몸을 낮추고 더 낮춰라
그러다보면 너의 고향, 너의 대지,
너의 지구를 만나게 되리니,
두 팔을 벌려 지구를
마음껏 껴안아라.

"땅바닥에 팍 엎어질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 눈을 낮추고 몸을 내려놓으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있더라구. 로드킬로 죽은 생명들도 많고.... 그러니 아스팔트에서 별의별 냄새가 다 나지.
차만 다니는 길이 아닌데 차가 중심이야. 빠르고 크고 거대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소외되는 지 몰라. 절을 하다보면 저 트럭에 막 빨려들어갈 것 같아. 로드킬을 당한 생명들처럼. 그러니 한시도 소홀히 살수가 없는 거야. 아까는 나랑 동갑인 농부를 만났어. 전전날부터 오체투지하는 걸 봤다며 쌀한가마니를 짊어지고 왔더라구.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지.” (문규현 상임대표)
9월 4일 지리산 하악단에서 시작한 오체투지 순례가 10월 26일 계룡산 중악단에서 끝났습니다.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오체투지는 묘향산 상악단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언제는 안 그랬어? 89년에 판문점을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 바람은 누구도 못 막는 거야.”
느리게 느리게 낮고 또 낮게 가는 순례길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과 평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순례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목적지는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회비와 후원금(9월)
중앙

[대표/임원] 배종열 문규현 홍근수 강정구 변연식 문홍주(2개월) 장경욱 이일영 박용일(2개월) 홍창의 김성윤 박석률(2개월) 정순영
[특별회비] 서창호 서울평통사여성분회(2개월) 장관철 장창원 전영남 홍근수
[후원금] 강남향린교회 김준기 김숙희 김형예 무명 박춘원 서경숙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우경태 유영섭 이은혜 이광수 이성호 임동명 최문숙 최재영 푸른마을교회 하정일 한희숙 해피빈 향린교회 홍민애

서울 평통사

[회원회비] 강유겸 공동길 권병길 권혁문(2개월)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석민 김석제(2개월) 김성윤 김순정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영진 김은미(2개월)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중한 김지수 김진환 김채석 김현성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나영훈 남미영 문성현 박석분 박선자 박정자 박정훈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정 백차현 서광석(2개월) 서동빈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우정 손윤희 송민영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 유영재 이경목 이경아 이민규 이경옥 이민형 이병일 이성열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행복 이현규(2개월) 이현숙 이혜영 이혜진 박승렬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남희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2개월)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희 조요환 조창현 주재영 지안나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현동식 황규금 황 선 황윤미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고은숙(2개월) 권영무 김각영 김경찬 김균열 김기환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상중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영호 김용순 김유중 김점희 김정순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 호(2개월)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2개월)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안지성(2개월) 양계탁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 오혜경 오혜경 유영철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병용 이상근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연자 이영욱 이 윤 이은영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 이현준 이혜경 이혜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천상배 최용기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재현 한중현 허경자 허헌중 홍길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애 채정자 강혜선 곽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성희 김숙희 김인영 긴정후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숙 노은하 노칠성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진 박숙경 박옥선 박용섭 박은영 박인호 방정

미 배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소우영 손종욱 신장호 신정길 양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이경숙 이리나 이보영 이상수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진혁 이현주 이혜련 임숙영 임채경 장동환 장미숙 장해영 전윤미 정승현 정용진 정은현 조미옥 조미우 조지선 주명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최경순 최경호 최은주 최정규 최진선 최혜정 허진우 현지환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영준 권창식 권태형 김강연 김경태 김경희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억 김오섭 김원식 김은영 김의숙 김일회 김정녀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태영 김호영 김희겸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선 서재경 서재훈 서화조 소예숙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신나영 신동훈 신창균 신창선 신필녀 신현범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염성태 오현곤 오혜란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선영 윤인중 윤화심 이남희 이무용 이상준 이영라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유성 정재훈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영준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한영순 홍　종
[후원회비]　김금옥 김대인 김도식 김명종 김미영 김상기 김정대 김지영 김지은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노경희 문병호 박상태 박상호 박순희 박영민 백은정 서덕용 소병욱 송경평 송정로 송한석 신용준 신정순 심이섭 심재건 안용원 오석근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한진 이거종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이혜정 이화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병규 조영정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원식 하태준 허문예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기덕 김택균 문종식 민영완 변혜숙 손영인 오영미 이근랑 이수용 이승윤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유빈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장태곤 장창원 최돈표 황재순(2개월)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고준택 권선필 권선혜 권　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성자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지수 김지영 김홍업 김흥수 류재중 문양로 박경란 박도신 박범창 박영칠 박희인 서영완 서영희 소종영 손용감 손정희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송태현 신성정 신현정 심유리 엄기문 엄자옥 오광영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이경아 이기홍 이미옥 이번영 이요한 이종명 이지연 이춘자 이창복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인백 전기룡 전은

경 정성삼 정순희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만정 최영민 최정임 추교화

전북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권선희 김대송 김명근 김미경 김순희 김아영 김윤순 김종혁 라귀인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박충례 방용승 서현선 송화선 신범석 신용우 안경숙 양재석 양정순 양지연 오기주 유희탁 이경진 이금림 이명자 이병기 이병주 이성교 이세우 이수정 이용숙 이장우 이정현 이진규 임재완 장수나 장완수 전병생 전용균 전호일 전호정 정운승 정웅용 정은주 정창완 정태웅 조광범 조광수 조성숙 최성웅 최수경 최희숙 황영하 황인철 허자영 허정길 현주억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인수 김준근 김진호 김진환 김판태 김효성 남현욱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영희 박종대 박종문 서경희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엄미숙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이상호 이성원 임보영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건희 정 민 정병휴 조규춘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목 최재석 홍경갑 황현정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흥문 김경태 김관주 김광훈 김기수 김덕현 김미경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수미 김승환 김영식 김영식 김영일 김용성 김은곤 김은숙 김정태 김태옥 김 현 김희용 남부원 노준복 리 억 모영현 문유신 박규상 박병율 박상재 박석면 박석종 박석환 박선이 박수현 박승규 박승옥 박영배 박윤수 박종주 박종찬 배영일 백은경 서창호 서현화 송경희 안성례 안희만 엄영애 오근선 오승주 오형옥 유진이 윤영식 윤종순 이광철 이기호 이대준 이돈기 손용석 김순종 이영선 이영실 이영대 이윤옥 이인수 이철우 이태석 이현수 이희수 임현삼 장관철 장우광 전경일 전영남 정기대 정길주 정동석 정유철 정종득 정중석 정찬록 정회억 주근호 채일손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한강희 한경진 홍용식 무등교회 무진교회 큰사랑교회 민들레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권기찬 권정애 권주원 김금희 김영애 김옥희 김인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판갑 김헌택 김현숙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박화무 배오직 배용한 오덕훈 우성섭 유춘우 윤지홍 이규중 이천우 이형창 장호철 정복순 정철

환 조선아 최난희 최윤환 최형석(2개월) 피재현 한철희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CMS회원만)

고경수 김남경 박성민 박순종 배찬호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부산경남 지역회원

김건우

경기북부 지역회원

김일권 주병준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종수 김태준 배종렬 신정길 임승계 조헌정 홍근수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경호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범준 이선엽 이수정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홍영진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 편집후기 |

“돈 대주고 땅 대주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10월 말,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에.
“매년 천억, 2천억씩 남는데.. 이런 분담금을 주는 얼빠진 나라, 얼빠진 국방부 이런 게 어디 있는가..” - 서청원 의원(친박연대)
“1조 1,193억이라는 돈에서 이자수익은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이라크 전에 쓰였다든지 미국 펜타곤에 이 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민 의원(한나라당)
“(C4I 비용이) 과거에 국방부에서 4백억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천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9천 8백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사인했다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2004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YRP)'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평통사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20~30조 원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떠맡게 되고, 평택 주민들이 고향땅에 쫓겨나게 된다며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고군 분투 했습니다. 1년 내내 대중 캠페인을 벌였고, 청와대 앞 신문고도 두드려 봤고, 국회 앞에서 평택 주민들과 농성도 하고, 심지어 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는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가서 기습시위도 했습니다.
평통사의 투쟁에 당시 국방부는 한국측 부담이 3~4조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했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르고, 평택기지 완공을 2019년까지 미루면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여 ‘남의 돈으로 팔자 고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4I 비용도 애초 국방부의 추정보다 24배가 늘어난 게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평통사의 주장이 객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며 참 씁쓸합니다.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미국의 의도대로 ‘제대로’ 놀아나주고있는 한국정부가 한심하고,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지 못한 평통사의 부족한 역량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직 끝이 난 것은 아니지요. 2019년 평택미군기지 완공이라니.. 앞으로 10년도 넘게 남은 일입니다. 그사이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또 다시 환란입니다. 미군만 배부르게 하는 국방예산 증액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강타하는 금융위기의 본질을 따져보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기고문도 실었습니다.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기회와 희망을 그려봅니다.
지난 호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진을 표지에 실었더니 주문처럼 이루어졌답

니다. ^^